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合八面
發行人 方應謨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飛行界와朝鮮人
―朝鮮女性의最初犧牲―

一

現代文明의 꼿이라고 한동안 자랑하든 飛行機도 最近에 와서는 너무나 흔해졋스므로 新奇하다보다 平凡한 一交通機關이 되어간다 文明國의 大都市새에는 진작부터 飛行機가 常設 또는 定期의 交通機關이 되어잇서 物貨運輸와 旅客乘用에 供하거니와 遠距離飛行에 이르러서도 大西洋은 勿論 太平洋橫斷과 世界一週에서지 成功을 보게된 오늘에 飛行機라면 거의 陸上의汽車와 海上의汽船과 마찬가지의意味에서 空中의 交通機關이 되어가는것은 양탈하지 못할바다 그러나人類의開化는 交通의産物이다 일즉地中海中心의 文運이 大洋으로 進出함에 蒸汽船의힘에 힘닙은바 만타면 오늘날(따)옷에서지 퍼진文運이 다시 空中으로進出함에 飛行機의힘에 힘닙는바 또한 만타고할지니 우리朝鮮人도 이文明의利器에對하야 좀더 愛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잘利用할줄 알어야만 現代人으로서의 現代文明을 享有할것이다

二

이런 見地에서 近年朝鮮青年새에 뜨문이飛行士의 出來함을보게될새 적이 一種喜悅을 禁하지못한은 그것이다만 文明의利器를利用함으로해서 그럴뿐이 아니라 青年의 冒險的思想과 進取的氣象을 鼓吹함에도 퍽必要한 때문이다 그네들새에 女飛行士數人이 석겨잇슴은 萬綠叢中의 紅一點格으로 異彩를낫든다 이번에 日本羽田을出發하야 滿洲新京까지長距離의大飛行을되하다가 그만 立岳山中에서飛行機의 墜落과함께 慘死를일은 朴敬元孃으로 말하면 가장 錚錚한 者이다 雄心이 勃勃한女鳥人인 그는年來 몃번이나 故土訪問飛行을 企圖하엿지만 번번이 뜻대로 못되고 畢竟남의사람의 援助를 어더 그의품은素志를 貫徹하려고 하든것이 그의最後運命을 促進할줄이야 누가 알앗스랴 技術이 鋼熟한 그로서 失手된原因은 오즉雲霧에 進路를 그르처서 그리된것이 아닌가 또는 무슨다른 原因으로 機關에障害가 생겨서 그리된것이 아닌가 그失墜에對한 推察은 何如간 그의一死는 朝鮮女性으로서의 征空界에 最初犧牲者이니만치 泛視할수업다

三

從來 조그마한 閨中을 世界로 삼아 蟄居하든 朝鮮女性이 모든因襲과 傳統의 拘束을 쌔트리고 空中을自由로 나라다니는 鳥人이 됨과가름은 十數年前만 하야도 夢想에도 미치지 못하든 有史以來 처음보는일로 朝鮮女性界의 一大革命이다 만일 우리네 先民으로 이것을 보개된다면 얼마나 놀라겟느냐 이번朴孃의 죽은것은 낡은文明에서 새文明에로 進出하는 朝鮮女性의 그先驅者一人을 永久히 空中에 印짐어두는데 一大意味를 發見할것이며 더구나그의 征空雄圖는 滿洲大陸의 蒼空을 翔遊함에만 잇지안코 거기서 다시 世界征空의 計劃을 세웟든것으로 보아 그가비록 죽엇지만 朝鮮女性을爲하야 一大氣焰을 吐하엿다

馮玉祥 滿洲國의 經濟攪亂을 劃策
武力的抗日反滿에 失敗한後 經濟的으로 反滿策略을 變更
滿國當局은重大視

【電通奉天八日發】某方面으로부터의情報에依하면最近武力에依한反滿抗日에失敗한馮玉祥은僞造紙幣를亂發하야滿洲國의經濟界를攪亂하는 一方農産物價額을引上시켜農民의人心을收攬하야써 反滿抗日策으로하려는 目的으로最近奉天某處에多額의 資金을貯藏하고잇는中이라는데 武力抵抗의不利함을察知하고 經濟攪亂에依한反滿抗日로轉向하고잇슴은 看過할수업는 重大問題로觀測된다 (寫眞은馮玉祥)

十九路軍 討共成績不良

【電通上海七日發】廈門來電에依하면 十九路軍의討匪成績은 頗히不好이며瑞金長汀、漳州、上杭各地의戰鬪가 다十九路軍의不利로되여 共産軍의廈門進擊이 憂慮되여잇다 共産軍은 長泰로부터進擊中인데 漳州城은벌서共産軍에게占領되엿다

張學良歸國後 航空司令就任說
黃,何兩氏는北中收拾上反對
宋子文氏가極力斡旋

【北平發】中國側消息에依하면張學良은 十月初倫敦을出發歸國하게되엿는데 國民政府에서는 張氏가航空方面에多大한興味를가지고 歐洲各國의航空施設等을 細密히視察하고잇슴으로 그가歸國하면空軍司令에任命하기로 大略政府部內에서 意見이一致되야이미 宋子文을거처 張學良의同意를求하엿다하는데 이消息이어떠한程度까지 確實한지不明하나 張學良의歸國은 中國內政上에相當히困難한바가잇서 蔣介石汪精衛도 張學良의歸國을歡迎하지안으며 特히北中收拾中에잇는黃郛何應欽等은 張學良의歸國으로 北中의舊部下가動搖하야北平收拾에 大障碍를招來할念慮가잇서 極力이에反對하고잇슴으로 蔣汪兩氏가此際張學良의歸國歡迎에 轉心하리라고생각되지안이하며 宋子文이 그의歸國을 斡旋하고잇는것은 事實이나 그러하고蔣汪兩氏의 心境轉換까지에 미치기는아직 根據가업다는것이 一般의一致한觀測인바 그의歸國이果然事實이라면 그것은國民政府의對內外政策上에도 어떠한轉換이蔣汪兩氏間에 議論된結果로看做될것이며 이의趨勢는자못注目된다

勸誘로入閣함은 鈴木氏의自殺
鳩山文相車中談

【聯合東京七日發】鳩山文相은七日午後二時三十五分上野驛發日光으로向하얏는데 車中에서左와如히말하엿다
無任所大臣問題는相當히表面化하여왓는바 突然具體化할問題는안이다 鈴木總裁가無任所大臣으로入閣하고 안이하는것은 其時의政界情勢에依하야決定될것이라는意見이 잇는듯한바 반드시그럿타고 生覺하지는안는다鈴木總裁가入閣하게된다면入閣할만한正確한 理由가업스면안이된다 事理如此함에不拘하고 齋藤首相과高橋藏相은무엇이든지 조흐니 入閣하야現內閣을助力하라고말하는듯하나 이래서는入閣하여도何等의効果가 업슬것이다 事理如上함으로 鈴木總裁가入閣하는以上이것저것이政策을實行할것이라는政見의 正確히樹立되지안으면안이된다 現內閣은政友會의政策을 歡迎實行한다고말하나 入閣後政府가如何한態度를取할는지只今부터 豫斷할수는업고 또한政友會는內閣에對하야 責任을分擔하지안으면 안이될것임으로慎重한態度를 取하지안으면 안이된다 勸誘를 받엇다고하야 入閣한다는것은 鈴木總裁를 自殺식히는것과 다름업다 政黨의 復歸를當하야 政黨聯立의黨首腦部間에도 問題가되든하나 聯立하야 大捕무엇을하려하는가 目下의政黨不振은 國民의信賴가업는것이○○이듯하다 聯立하여도信用은恢復되지못한다 無任所聯立內閣도優先무엇을할것인가를決定한後가아니면아니될것이다

中國外交部長 汪精衛氏兼任
次長엔朱鶴翔氏就任

【電通上海八日發】汪精衛가 外交部長을兼任하는同時에現國際司長朱鶴翔을 常任次長으로 行政院秘書唐有壬을政務次長으로하기로內定하엿다

宋哲元軍 張家口入城
馮玉祥張北으로退出

【聯合北平八日發】察哈爾問題에對한和平解決辦法決定의結果同省의 政治軍事를引繼할宋哲元部隊는八日早朝張家口에入城하얏다 이로써過去二個月동안이나騷動식히든馮玉祥의計劃 一切은失敗에歸하고 八日張北에退出하기로決하얏다

米大統領 宋子文과會見
中國金融問題聽取

【電通하이박七日發】「루스벨트」米大統領은 世界經濟會議로부터 도라온金融通貨에關한顧問等과 會見할豫定이엿든바 突然그豫定을變更하고 經濟會議中國代表宋子文과會見하야 中國政府의金融問題에 關한意見을聽取하기로되엿다

經濟的急進主義 獨政府가彈壓
小商人保護協會解散

【電通伯林七日發】獨政府는 昨年十二月大商店特히 外國會社及猶太人經營의 百貨店에對抗식히기爲하야約二十五萬의會員으로서 組織되엿든小商人保護協會를解散하엿는바 其理由로서政府는大商店의 横暴를눌러버린今日前記小商人保護協會는使命을다하엿다고말하고잇스나其實은 經濟的急進主義를彈壓하는目的이라고觀測된다고한다

定例閣議

【電通東京八日發】定例閣議는 午前十一時부터 開會하야齋藤首相以下 各閣僚(高橋藏相缺席)出席한후 小山法相으로부터長野縣下를 視察한結果를報告하고○○事件에對하야 說明한後荒木陸相으로부터 滿洲國의治安關係에 對하야反滿軍의減少한事等을 說明하얏다 또한財政狀態는極히 順調로進行되야 本年度는 一億四千九百萬圓으로前年度에는 一億千三百萬圓 前年度豫算은 千二百萬圓의公債를發行하야 臨時費에充當할方針이엿든바 豫備金과增收에依하야公債發行이 必要치안케되엿슴으로 財政은全般的으로 堅實하다고說明한후 正午散會하얏다

定例局長會議

定例局長會議는 八日午前十時十分開會 今井田總監부터明年度豫算은 大體決定되엿다한바 아직도不備한點이잇스면一兩日中에追加提出하라고 陳述한후吉田鐵道局長은 朝鮮海에서 暴風雨로인하야列車遭難事件을報告하고 다음鹽殖産局長은 今回의暴風으로인하야漁船被害를 報告한후牛島內務局長은 中樞院參議鮮于鐫氏가承認로잇다는것을 述하고午前十時五十分에散會하얏다

伊飛行機發程

【聯合倫敦八日發】「하버ー뉴ー화운드랜드」當地에서大西洋橫斷歸還飛行機를기다리든伊太利機二十四機는八日午前二時四十五分「아조레스」群島를向하야大西洋橫斷의壯途에올낫다

英佛의個別抗議에 獨逸側强硬拒絕
獨墺의軍備擴張이必然化하야 全歐에危機招來形勢

【電通倫敦七日發】獨墺關係의 注意를喚起하려고하든 英佛側의抗議에 對하야「히틀러」首相으로부터 卽時强硬한拒絕聲明書가公表되엿다든伯林電報는「론던」外交界를 놀나게하야 이에따라必然的으로「오스트리아」의自衛的軍備擴充이 안이되면 안이된다고解釋하고 獨墺關係의 軍備擴張을招來하고 中歐延하야는全歐에重大한危機를 招來할念慮가잇다고 憂慮중에잇다고한다

墺太利政府 獨逸에抗議

【電通위인七日發】獨逸의反墺宣傳問題에依한 獨墺關係의 惡化가宣傳되고잇든 此際또다시獨逸「나치스」系勞働團員의 『오스트리아』『바바리아』와의國境「쿠ー푸스타인」에서 突如「오스트리아」의 補助警官一名을射殺한事件이發生하야 國際的으로 重大問題化하려고잇든바 「오스트리아」政府는直時駐獨「오스트리아」大使에 訓令하야右警官不法射殺事件에 對하야 獨政府에抗議를시킬方針이라고한다

滿國側、蘇聯側에 評價引下를要求
蘇滿兩國私的交涉內容

【電通東京八日發】北鐵讓渡에關한私的會談은 八日午後三時부터外務次官官邸에서 大橋「카즈롭스키」滿蘇兩代表間에擧行되엿는데日本側 「오브써버」는列席하지안키로되엿다 大橋「카즈롭스키」兩代表間에 評價問題에 關하야意見交換을할터인바滿洲國側으로부터는蘇聯側의評價額二億五千萬金留는 到底히本交涉을成立시키기에는 意로折衝을進行시키는바가아닌 點을再次力說하고 爲先評價額을다시引下하기를要求한것으로 觀測된다 따라서八日私的會議에서는留換算問題에는抵觸하지 안코評價問題로終始할것으로豫想된다

沿海洲方面에 餓死者續出
食糧欠乏으로

【電通間島八日發】某所蕃報에依하면 浦鹽附近沿海州住民은 依然食糧缺乏으로因하야飢餓線上을彷徨하고잇는바七月中露鮮人의餓死者는二百餘名에達하엿다하며 取締嚴重한國境을脫出하는者每日二百六十餘名에達하는狀況이라한다

農林省總豫算 一億七千萬圓
九日大藏省에提出

【電通東京八日發】農林省에서는過般來省議를거듭하야豫算作成을急히하고잇든바八日決定을 보앗슴으로九日大藏省에提出하게되엿다 九年度新規要求額은 一億七百八十三萬八千圓에達하야 이에標準豫算六千八百五十八萬圓을加算하면農林省總豫算額은 一億七千五百萬圓이라는 膨大한額數가된다

【時事漫畫】獨墺間의低氣壓 나치스 繁殖에못견딘 墺太利君이 佛蘭西를 盟主로 小協商國의 拍手喝采아래 斷然 녹크아웃한 蠻勇까지는 富劇이겟스나「나치스」의 報復爆彈(武力對抗)이 떠러진다면 中歐의喜劇은 活劇에로가 아닐가? 金華畫

滿洲가는길에〔二〕
國境은언제부터
鴨綠江中心의朝滿關係一考
特派員 金炯元

◇

滿洲와朝鮮의關係는、種族的歷史的乃至經濟的 모든點으로보아 매우깁고 複雜한 關係를 낫치더듯이 보기는、그러케쉬운일이아니오、忽忽한나그네의한바도못되는일이다。國境新義州에와서 문득생각되는것 여기가언제부터國境이되엿는가하는 것이다。史家의말을들으면、아마高麗初부터 된듯하다하며 成宗때에鴨綠江에軍港을 두엇다고한다그러면 그前에는 國境이어데까지엇든가。

◇

平北滿浦鎭對岸 輯安縣通溝는 高句麗의長壽王이 平壤으로遷都하기까지 四百餘年間首都로서 國內城或은丸都라고한다。이는廣開土王의碑文에依하야歷然한事實인즉、얼는생각하여도 서울을鴨綠江에둘理致는萬無한일이오、그쌔의 지경이얼마나 되엇스리라는것도 推測된다。蔡元培一派新進張其昀의『中國民族志』에依하면『慕容氏의衰함에及하야 遼河流域의地는東胡族高句麗의雄據한바 되얏다』고하엿다。慕容氏는三國以後 漢人의勢力이微弱하여진틈을타서 遼東에獨立하야 燕을괴롭게굴엇슬뿐아니라高句麗의丸都까지侵略한일이잇는强族의하나이다。엇든지、朝鮮人도아니오 漢人도아니오 滿洲人도아니오 漢人의피를바든張氏가 이러케적은것만보더래도 當後의版圖가 적어도滿洲의南半에는밋친듯하다는말하되『隋唐時代에는高句麗의勢力이가장强하야北으로는長春、東으로는日本海에이르고、南으로는漢江、西으로는遼河에이르러 隋의西都과相接하엿다』고하엿다

◇

이만하여도、滿洲란땅이 우리와얼마나 關係가깁헛든가를想像하기에는넉넉하다。張氏가告白한것과가치 當時의高句麗는 版圖로나勢力으로나 一大强國이엇든것은 事實이오、嬰陽王二十三年(西紀六〇二)隋의煬帝、공연히來侵하다가 乙支公의一擊에鴨水에서 大敗한事實이라든지、唐太宗李世民이 三十萬大軍을거느리고 蓋蘇文의逆襲에들어오다가 翁氣잇게처부작못하고 돌아나가는길에安市城(現在錦州東北七十里湯地)에서 楊萬春의一矢에눈이멀고달아난事實가튼것은正史上에뚜렷이 올는일이라아모것도모르는내가군더덕이를붓칠必要는업는일이다

◇

그런데、여기에한가지注意할것이잇다。張氏의『民族志』에依하면 高句麗도 東胡族이오慕容氏도 東胡族이라하엿스니、政權은다르고 地境은갓지안헛다할지라도、高句麗의피를바든우리로서 볼쌔에는다가튼 우리의祖上이라고할수도잇는것이오、그들의발자최가밋친곳은 모두가우리의 녯날版圖라고생각하여도、心쟁이의 턱업는투정이라고 만볼것은아닐것이다。이러케 史記를더듬는다하면 鴨綠江으로國境을삼는 우리의오늘날이 어이업기도하고、滿洲를 딴지경으로생각하야 移住한다는 白衣人의알아지가 가이업기도하다。하물며『滿洲는當初로 關東의草原으로서 東胡의故鄕이라』(前書)는말을들을때에、우리는 이때까지의滿洲에對한모든意識에破産이생기지아니할수업는 것이다。아、그러타。滿洲는 우리의故鄕이다。史眼으로보아서의正當性如何는 버가구태어캐일바아니오、直系祖上이아니라할지라도、四寸、六寸쯤의傍系祖上은 確實할것이니、그들의살든곳을、지금에 숙혀남의터전으로아는것부터가 못그럴은일이아닐가 (新義州에서)

殖銀과東拓에서 長期貸利下決行
◇二厘乃至九厘引下

殖銀 에서는産業公共貸付利率을改正하야 十日부터實施키로決定하고八日當局의認可를得하얏슴으로左와如히發表하얏다

△一般産業貸付及農工業者十人以上連帶貸付 七分八厘(七厘下)
△公共團體貸付(水利組合을除함)七分(二厘下)
△公共團體年度內一時借入金貸付(水利組合을除함)七分(五厘下)
△水利組合年度內一時借入金貸付 七分二厘(三厘下)
△漁業組合聯合會貸付 七分二厘(五厘下)
△水利組合貸付 七分四厘(五厘下)
△非營利産業法人貸付 七分五厘(五厘乃至七厘下)
△烟草耕作組合貸付 七分五厘(二厘乃至七厘下)
△政府의補助가잇는事業鐵道財團及電氣工場財團에對한貸付 七分五厘(七厘下)
△産業組合農事改良自己資金八分(九厘下)

東拓 에서는殖銀과協調하야 長期貸金利下를決定하고十日부터實施키로하고十日左와如히發表하얏다

△不動産擔保貸付 七分八厘(七厘下)
△公共團體水利組合 七分四厘(五厘下)
△同上年度內一時貸付 其他七分(二厘下) 七分(五厘下)
△水利組合年度內一時貸付 七分二厘(三厘下)
△水利組合設立前一時貸付 七分五厘(七厘下)
△産業에關한組合貸付 七分五厘(七厘下)
△連帶無擔保 有價證券擔保 鑛業權其他不動産上權利擔保財團其他確實物件擔保 七分八厘(七厘下) 但鑛産金融은八分三厘(五厘下)
△政府의補助가잇는事業鐵道財團電氣工場財團擔保 七分五厘(七厘下)
△土地改良自己資金貸付 七分四厘(五厘下)
△農事改良自己資金貸付 八分(九厘下)

前回通算 一分引下
◇……有賀殖銀頭取談

當行의貸付金利는 去四月에第一次利下를하야 爲先 低金利時勢에順應하얏스나 其後 金融界의情勢는 稀有의低金利로되어 當行의債權도 多幸히漸次低利의發行이可能케되엿슴으로 關係處와도協議하야 今回에利下하기로되엿다 今回의利下는 一般不動産擔保貸付와如한은 年七厘引下로 前回를通하면 實로一分의引下이다 其他各種의貸付에就하야서도 七厘乃至八厘의引下로 最多는一分五厘라는 지금外지업는 大幅의利下를 決行한것이다 이로서 日本의 農工銀行及北海道拓殖銀行等의 不動産金利에比較하야 더할만한 低金利를朝鮮에實現할수잇게되엿다云云

『하이치』駐在 米海兵隊撤去
兩國間에遂協定成立

【聯合華盛頓七日發】米國務省은『하이치』로부터 米海軍海兵隊를一九三四年十月末日限全部撤退하는協定이『하이치』政府와米公使『아ー모어』氏間에調印되엿다고發表하엿다米海兵隊는一九一六年『하이치』大統領『삼』將軍이暗殺되엿時全『하이치』를占據하고秩序를回復시킨以來駐屯하고잇든것이다

九年度高利債借替 資金割當決定

【聯合東京八日電】農林省에서는九年度耕地整理事業其他各種組合의高利債借替資金四百四十五萬圓(預金部資金)의各府縣割當을決定하고各其關係府縣知事에게通達하엿는바右整理資金으로借替될수잇는高利債는年利八分以上으로昭和六年十二月三十一日以前借入에限할이라는條件付이다

人事・集會

▲古庄逸夫(農政課長)新任人事次本社來訪

夕刊後의市況
大阪短期最終氣配

大新	一〇五四〇	(二〇高)
鐘新	一〇六一〇	(不變)
日産	八〇二〇	(二〇高)
東新	一八六七〇	(五〇高)

橫濱生糸

當	八三四	引
先	八三四	

第一劇場
●獨乙우파社最高의藝術映畫 名畵 曲藝團 全十卷
에밀야닝스氏主演
죽엄보다도굿세인人間愛慾의苦悶 永遠히解釋할수업는男女의三角關係 그리고無比의藝術作品! 빗나는名優의神技를보시라
幕間
獨唱과스켓취 歌劇界의男役의天才 成小牛
新進歌手의名花 金峯子
名女優 金玉鶴
소프라노歌手 金光子
特別大饗演

優美館
●獨乙우파社特作映畫 戀愛劇 處女여貞操를 더럽피지마라 全七卷
헤레ー꼰쏠
사랑은人生을裝飾하는庭園의薔薇라 보시라處女가엇더케해든가? 에라저운初戀의실마리풀라여? 감을보시라
大衆料金 階上 十五錢 階下 十錢 均一
每日二回 낫一時 밤八時十五分始映
八月九日낫부터大公開

團成社
八月九日水曜부터特別大公開
F、N、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다ー비ー × 全十卷
監督 마이그르가ー데이스氏
主演 라이오넬아드우일氏
助演 후에이래이孃
國境 戰 全七卷
監督 프렛드룸쏜氏
主演 데이빗트가그란드氏
助演 배스프러워孃
幕間 少女軍 舞踏 藝題交換!
次週公開豫告 暗夜의特戰隊、荒原에獅子吼하는女
▲FOX全發聲 사랑의暴風 全八卷

朝鮮劇場
八月七日부터短期間二日 夜間演劇、晝間映畫
▲佛國鬼作 毒 血 全一幕
▲佛國鬼作 도라온사람 一幕
▲石紅傷案 아이번호래비 一幕
▲幕間獨唱과音樂
▲FOX全發聲日本版 女性에게바치노라 全十卷 階上二十錢階下十錢
▲FOX全發聲 사랑의暴風 全八卷
蓄劇 不注意의忘身 全一幕
次週는十二日낫부터特別映畫 週間과社二大特作全發聲日本版 나가자!! 올림픽 ? 로이드의活動狂

△自八月八日부터 特別納涼週間(第七週)
大衆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下十錢
◇宋海天來
人情劇 나난옛집 全一幕
特別幕開
1.루・라 부
2.술은눈물이가? 한숨이드냐?
3.아루르의개집에
新舞踊、싸즈・딴쓰・藝題交換
金小君 姉妹鍾熱演 金綾子
新加入 諸品子出演
獨唱 劉桂仙 姜點紛
李貴灑指揮 싸쓰・밴드舞台演奏

돈버리大王
(型錄進呈) 新高級形 穀物膨脹機
五合의米가 八升이된다
◎高膨特製
大阪市北花園町 石橋機械製作所

一島船舶俱沒로 糧途杜絕된孤島

慘況을말하는海上의片片舟片

行方不明者捜査無望

【智異山丸에서本社吳特派員無線電】 오늘(팔일)아츰 여덜시에 인명구조와 시체수사의 소해(掃海)작업을 하기위하야 아직도 폭풍의 기세를 보이고 잇는 바다를 건너 욕지도(欲知島)부근의 절도를 돌아가는 이배(지이환)에탓다 오전열시에 좌사리도(佐沙里島)를 지나 국도(國島)에 도착하엿다 이섬은 통영(統營)으로부터 삼십오『마일』이나 떠러진 절도로서 인구칠십명인데 이번 폭풍우로 배를일허버리고 마랏슴으로 륙지와의 련락은 아조끈어젓다 그리고 부러 오는해풍에 감자와풀은 말너버렷스니 식량을 어들길은 전여 끈어젓다 이섬의 생활상태는 거이 원시시대를 버서나지못하엿다 배는 지금부터 소지도(小知島)매물도(每物島)를 지나 통영으로 갈터인데 지금 바다우에 보이는것은 배의깨진 조각뿐이고 시체 혹은 물에빠진 사람은 뉴에보이지아니하다 행방불명된 사람은 수사할희망이업다

濃霧中山腹에衝突 把手를잡은채卽死

停止된時計는午後一時廿五分

女鳥人慘死瞬間情景

【電通熱海八日發】 박경원(朴敬元)양의조난상황은 대략다음과가티 추정된다 박양은일만(日滿)비행의길에 올라칠일오전열시사십분우전(羽田)비행장을떠난이후이두(伊豆)반도일대를 덥픈 기픈구름에 드리가게되여 얼마안되여 아페정강현전방군다하촌(靜岡縣田方郡多賀村)의표고(標高)칠백구십구(메돌)의 현악(玄岳)을분간치 못하야 울룩불룩한 이십오도의경사면에 비행긔머리를 부듸치여 석구로떠러지어박양은독해들는불잡은채로 바른편가슴과 얼골머리에 중상을 입어참사하엿다 조난시각은 박양의 시계가 오후한시오십분 삼십초에서 모춘것으로보아 이시각이라고인정된다 시체와긔체는 일본비행학교의 비행협회대표자가 음을기다려 처치하기로되엿다

廿五名一時慘死 한醴泉災地現場
破壞된집터(左) 沙汰난자리(右) 廢墟로變한집터(下)

失踪三時間만에 巨額赤行囊發見

遞送便잘못알고到着局서騷動

空行囊에護衛巡査까지

경성우편국으로부터 강원도 삼척(三陟)우편소로 붓은 주머니(赤行囊)에 너어 보낸현금일만팔천원이 삼척우편국에서 개봉한결과 돌연히 간데온데가업서젓슴으로 말미암아 삼척우편소를위시하야강릉(江陵)우편국과 경성우편국에서는『릴레이』식으로한참동안굉장한소동을하든 주칠일밤에야경관의어마어마한 호위에지밧고 삼척에지가든 적행낭은실상 빈 주머니요일만팔천원현금이든알주머니는길이밧구어 소동을하다가 강릉우편국에서발견하게되여관계당국도숨을내쉰동시에 멋시간동안 법석을하든 사건은 한바탕웃슴거리로도라가고마럿다

폭풍우로말미암아 도로가 문허저서 강릉삼척 지방으로가지못하고 사흘동안이나 적체되어잇든우편물을 경성우편국으로 도로올려다 가록일오전열시에 원부터 자동차로 동차를내여서 직접 강릉으로실어보냇는데 그우편물은 그날밤열한시에 강릉우편국에 도달되엿다 그리하야 강릉우편국에서는 칠일오전여덜시에 삼척우편국으로가는 우편물을 자동차로실어보내게되엿는데 강릉국에서는 그우편물가운데든 한 주머니속에 현금일만팔천원이 드러잇는줄로만 알고 강릉경찰서경관한명을 청원하야 아주어마어마한 보호로수송하야 그날오후한시경에 삼척우편소에 도달되엿다

◇그리하야 삼척우편소 에서는 도착되엿슴은 주머니를 뗑장에푸러보앗든바 드러잇서야만될현금일만팔천원이 드러잇지 안햇슴으로 이것이 어쩐일이냐고하야 삼척우편소장은 눈이둥그래지면서 놀래어황급히 강릉우편국으로 조회를하얏다 그조회를바든 강릉우편소에서는 또다시 놀래어경관까지 부처서보낸우편물이 도적을 마젓슬리가업슬터인데 하면서 기연미연을알수업서 가슴을 태워가면서곳그날오후 한시반경에 경성우편국으로 지급조회를 하얏다

◇이와가티 돌연한 조회를밧게 된 감리과(監理課)와 경성우편국 우편과(郵便課)에서는 또한 번물에게되어저시로원산(元山)우편국과 강릉우편국으로 진화와 전보로써 조사를하는동시에 원산일은 안자리에가단이 안지잇슬수업시 초조하고 잇는중그때는 차에 그날밤열시에야 강릉우편국에서 칠원오후네시에 구원원 식물은 붓은주머니 두개가무사히 도착되엿다는 지급전보가 드러왓다 사실이즉 강릉 우편국으로 보낸우편물 가운데에서 현금 우편소에 도달되도록 우편소에서는 그런케되지못하고 경성우편국에 소동을 일으키게된것이라한다

大膽한竊盜

一夜八個所侵入

【禮山】 지난삼일오전삼시경에 충남례산군 삽교면두리에서 잡화상을하는 이전의부(二田義夫)집에침입하야 비상준비 소지금삼원을절취하고 그날동일한 방법으로 그부근의 칠개소에 침입하엿스나 그목적은달치못하고 도망하는도중에 단양사는자부 윤원수리승세(李承世)외이인의한테로 체포하야 즉시로소관삽교주재소에인도하엿다하며 범인은서산군인지면차리(瑞山郡仁旨面車里) 김덕수(金德洙)(二一)로 전과삼범이라하며 강원도등지에횡행하야이백여원어치를절취한사실을자백하엿다하며 범인은소관례산경찰서에서엄중취조중이다

技競運動

都市對抗野球戰 東京勝捷 ◇對大阪戰◇

東京12……11大阪

【宙通東京八日發】 都市對抗野球東京對大阪戰은 八日午後一時二十七分 부터 池田、春田、淺沼三氏審判下에大阪先攻으로開始 接戰十一合에十二對十一로 東京軍歡聲을부르며閉戰五時二分

▲投捕 宮武 伊達 中村 水上 手塚(東京) 岡田(大阪)

得點 {大20140004000=11 東C0008131001=12}

直線코ー쓰에 世界新記錄作成

뉴욕으로부터 시리아까지

◇佛飛行士兩人이

【電通佛都시리아七日發】 직선(直線)무착륙장거리비행의세게신긔록을 지으려고 미국동부표준시간 오일 오전네시사십일분『뉴ー욕』을 출발한 불란서비행가 고도시、롯시량씨가탑승한『죠셉、르부리놓』는 대서양을횡단『파리』와『우인』을경유하고 구주대륙을 횡단하야 소『아시아』에들려『쉬리닛치』표준시간 칠일 오후다섯시십분 불령『시리아』의『랴크』시외에 착륙하엿다 최초의 목적지이든『바구닷』에는 아직도사백팔십『마일』이나 남엇는데『뉴ー욕』으로부터 직선코ー스로써 오백오십『마일』여남아잇다『마일』을『스단돌』간 사천구백사십팔『마일』의 가지은 세게신긔록을 깨트려 세게신긔록을지엇다 소요시간은 오십오시간이십구분이라고한다

女學生놀니고 留置場신세저

칠일오후아홉시경에부내천연 …

嗚呼雄圖는挫折 崎嶇한女鳥人一生

堂上片母에는至極한孝女

愁嘆에잠긴朴孃親家

【大邱】 련약한 녀자의몸으로 붕정(鵬程)만리 거츠른대공을정복하고 자긔를낫코 자긔를사랑하는어머니와친애하는동포들을 찻기위하야조선에서 다못하나인 녀비행사박경원양은 칠일오전동경을 출발하야일본에서도 유명한험악(險岳)상근산(箱根山)을넘을때는 범거그의 가슴에기를진산컨 고요한산촌 그리운반도가파노라마와가티 펼치되엿슬것이다 이거럼어지 박양만깁붐에 석긴소리요 험한현해탄을 건너서 우리의눈압해 그의자태가나타날때 고향동포들의감격이 얼마나 컷슬것인가?

◇ 그러나 모순의행운로된 사람의일이다 그의용감하고도 귀여운장도가 그리운이땅를 밟든하야 반가운청에원한 화환(花環)한개도밧기전에 정강현현악(靜岡縣玄岳)에서 처주스런운명운에서 외로운혼이되고 말엇다

◇ 사연참 박경원(朴敬元)양은 경북대구부덕산정(大邱府德山町)륙십삼번디에서 출생하야 어렷슬때에 그곳 명신녀학교를마친후 대정십일년 십일월 대구 자혜병원간호부 양성소에 들어가 동십일년에 졸업하고동십삼년오월 대구 자혜병원에간호부로 취직하엿다가 열일곱살 때에 동경으로건너가모자수(某刺繡)학교에 입학하엿스나그것도마음에로되지안어포전(蒲田)자동차학교에 입학하야 운전술을배혼후바로그엽헤잇는일본비행학교에 입학하야 소화삼년월 동교를졸업하고 그달이십칠일삼등비행사가되엿고소화삼년 이동비행사가되엿다

◇ 친족으로는 남동생 박상훈(朴尙勳)씨가 그고향인 대구성처청집에서 나만은 어머니를모시고잇고 남형 박상문(朴尙文)씨는 방금 함경남도 리원(利原)에서 공의(公醫)로 근무중이며 매형 남수(南守)(四三)는 출가하엿다고한다

◇ 이참보를 접한긔자는 비동에와 인그의의 모를대구명처청에잇는그의집으로차즈니 마춤그의어머니는 부재중임으로삼립정(三笠町)으로 다시그의매형을차진즉 이종보를퇴음으로 듯는다고하며 눈물과함께 아래와가치말한다

◇ 그애는 금년봄월 집에왓다갓습니다그것이부모와동생으로서 마자막상면이 될줄누가알엇겟습닛가? 더욱히 그애는부모에효도가 지극한 아해로금년봄집에 와슬때에는 특히어머니를 위하야 보석것지요만흔 그와가치 양식(洋式)집까지 지어드리고 갓슴니다는면서다시말을계속치못하엿다

去益深刻한 風水害慘跡

死傷者四百九十餘
全滅家屋四千九百
沈沒船舶四百五隻

지난 삼일전라남도에 상륙하야 경상남도로부터 동해안을 북동(北東)으로 빠저서나간 대폭풍우는 날이갈수록 그참화는 격심하야 팔일현재로 경무국에 도착된 통계를 볼것가트면 피해는 사상자 사백구십칠명중에 죽은사가 백삼십일명 행위불명자가 이백팔십사명 부상자가 팔십사명이요 가옥의피해가 일만사천륙백륙십일호중에 류실과 전괴(全潰)가 삼천팔백팔십오호 반괴가 륙백구호 침수가 일만륙십일호요 선박피해가 팔백륙십구척중 파손이 천삼백삼십륙척 행위불명이 이십팔척 침몰이 사백오척으로 전남 경남 강원 세도가 가장 혹심하다고하다

就職線에서落伍된 一千二百失業群

就職이求職의僅五割

칠월중의 경성부(京城府)와 경성구호소(京城救護所)와화광교단(和光教團)의 삼개소의 직업소개상태는 구인자수는 일천사백륙십삼인이고 구직자 수는 이천륙백이십륙인이다 그중 직업소개를 바더취직된자가 일천삼백팔십팔인인데 이것을전년동긔에비교하면 구인자수는 사백사십칠인 구직자수는 이백삼십륙인 소개되야 취직된자수는 이백사십사인이이 각각증가 되엿는데 이것으로보면 재게의활긔를보여주는동시에구차한사람수가 느려가는것을표시하는것이다

滿洲國軍行悖 日本軍隊出動

結局悖兵五名被逮

【吉林】 지난팔월일오후일곱시경에 길림성서북중동리(復興里)집현관(集賢館)안에서는 만주국군인과 조선인사이에 싸홈이버러저 일시대혼잡을 이루엇든바 이처그자세한내용을 조사한바에의하면 당시조선인 로인한명이 그곳운동과함께에 권고하고 만주국군인이 억개를 부다치으로 금후로는종주의하라고 하엿드니 군인이온즉시로이에게달려들어 폭행을가하며『우리중국은너이들때우리(조선인)때문에망하엿스니 조선인은모조리××야한다』는락하야 피차에싸홈이버러젓든바 여마층 그곳을통행하든 만주국교통순경이 이광경을보고잇든 조선인측에서 야간의질문하엿더니 돌연물러오든만주국군인수십명이 달려들어조선인열세명에게 여지업는 폭행을가하야 인측에 폭행을하야 실도큰싸홈이 버러젓든바 이급보를접한일본영사관측과 헌병대에서는 야포대(野砲隊)까지출동하야 도망질치는 만주국군인 오명을체포하야갓다는데 일부의 전하는바에의하면 그들은 이번일로 풍설에의하면 조선인을 ××하려든계획이 미연에발각되엿다 한다

都會가그리워 無賃乘車敢行

문천군도초면 내리본궁(文川郡都草面內里本宮)에사는 성주상(成周相)(一八)과동면월내리(月內里)에사는최명선(崔明善)(一七)의 량명은시골서 농사하기에실증이나서 막연히 도회생활을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무단승차한후 룡원역에서 일찰권만 사가지고 려차로 청량리역에 내린것을 동역에서 발견하야 동대문서로 그들을인치하엿다고한다

兪日濬博士 追悼講演

來十二日에

십이일은 작년한강에서 불의의변사를당한고유일준(兪日濬)박사의 일주긔가됨으로 조선의사협회에서는 이날을 긔념하기위하야 고유일준박사 일주긔추도의허강연회를 십이일 오후여덟시부터 시내 긔독교중앙청년회관에서 다음과가튼 연제로열기로되엿다 한다

古代醫術과 近代醫學 尹日善 博士
營養과비타민 沈浩燮 博士
結核病과 無食饌治療法 白麟濟 博士
紫外線과人體 李榮俊 博士

醉中에無天子라 巡査의眼球强打

시내봉래정(蓬萊町)삼정목이백이십일번지에사는 어름장사 윤하는 령목소평치(鈴木小平治)(四五)는 칠일밤구시경에 대도정(大島町)삼십이번지음식점을하는 북도(北島)의집에서 술이대취하야 야료를함으로 순행하든 종산서조(曹)순사가 드러가 말류하엿더니 그자는 별안간돌을던저 조순사로 하여금왼눈에 약이주일 치료정도의 타박상을 밧게하엿다

吉林東大屯에 二百同胞受難

放火掠奪等을恣行

【吉林】 고량의번부키가되면 마적들의 발호로인하야 벽지의 조선농민들은 불안을 늣기게되는것이 상례인바 지난일일청오경에 길림에서 약삼백리가량떠러저잇는강동대둔(江東大屯)에는 마적사백여명이 민가에침입하야 방화와략탈을 여지업시하야피해가 상당히만엇는데 이로인하야 이백여호동포들은 농구며 가장집물을 모다집어던지고 길림성내로 속속피란하여온다고한다

◇수남이車에 수남이負傷◇

칠월오후 령시삼십분경에 도화동(桃花洞)전차정류장압해서최수남(崔壽南)(三五)의운전하는자동차가 경성운동향하여 들어올때 동막상리(東幕上里)일백오십번지에사는홍수남(洪壽南)(四七)이가길을 건느랴는것을 피하랴다가 자동차는실수하여 엽헤잇는 권주와 부드치엇스며 홍수남도그통에 경상을당하엿다한다

朴孃의 告別式은 十二日擧行

【聯合東京發】 비행중에 석허도 추락참사한 고박경원양의 고별식은 십이일오후한시 동경비행회관강당에서 결행하게되엿다한다

夏節과婦人衛生

『아해』업는서름을 누구에게하소연하랴요!

모ー도가부인병의원인 엇더케 손쉬웁게 집에서 곳칠수잇슬가

또거운해볏에 나무입새를 반작이는 녀름날에 지저귀는매미소래에 새로 … 여러분 가정의희락은 여러분의 깃분얼굴과 어린아해의환성으로 행복의 매실이열며 … 『보배』는 여러분의 … 만일 여러분이 남모르는 고통을바드시거나 『자복』업는을 … 녀자의 친한 … 『부인병』때문 … 부인병의 … 고생하시는 분이 얼마나 만슴니까!

◇두통 상기 현기가심한분
◇월경이 고르지 못한분
◇대하증(소위냉증)이잇는분
◇허리와 아래배가 압흔분
◇수족이 냉한분
◇가슴이 두군거리고 숨찬분
◇혈색이 나빠고 성미가급한분
◇월경이외에 자궁출혈하는분
◇국부가 붓고 가렵고 압흔분
◇산전 산후 에쇠약하시는분
◇산욕열(産褥熱)이 잇는분
◇유산(流産)난산사산하는분
◇부부화합에 자미를 모르는분
◇건강이 보이고도 아해못배시는분

이런 증세가 잇스시다면 즉 부인병의 초기인것을 증명하는것임으로 곳병근을잘살피시고 치료방법을강구하시여 행복을 어드시게노력하시는것이 모성에를가지신 녀성의 미덕이며 의무일것입니다!

즉 배란작용(排卵作用)이라하야 월경한기간을 두고(약한달)란소(卵巢)에서 란자(卵子)를 배출하야 임신의 준비작용으로 인하야 생기는 월경이 불순하게 된다하여도 발서『부인병』의 초기임을 증명하야 또한이와함께 『대하증』은 대개 어느 분에게도 보통잇거나하고 경시하시지만 이것은자궁의 염증(炎症)장해이며『대하증』등으로부터 생긴것이며 『대하증』의 가진산성(酸性) 아르가리성분의유독소(有毒素) 때문에정충(精虫)의 상향작용(上向作用)을방해하며 란소의발육을 불완전케하야 포태기능을 불능케함으로 녀성에게는 동한시못할 적입니다 그럼으로 병세를아시는것은 치료에한거름을 발분것임으로 여러분은 그원인을잘살피시며 주저마시고 하로밧비치료방침을 차즈시와 적절한방법을취하시기 바람니다

엇더케 손쉽게 집에서곳칠수잇나

하절(夏節)은 일년중 제일병이심하게 되는때임으로 특히녀성의위생과건강에는주의하여야하실것입니다 구진비 부슬부슬오며 장마개구리울어때가되면 부인병의고통을더욱늣기게됨니다 잠복되엿든 병세는 일커히발생되오며 몸시두통과현기가 심해질것입니다 또한병에치인몸에 고통에는 몸약한탄을 더욱늣기게되실 것임으로 중하게되시기 전에 하로밧비 치료하셔야 되겟스나 그것에는 조혼적당한 약과상담 …

본방에는 특히『조선부인의의문부』가잇서 조선문으로 자세히병세를 통지하시면 각권문의사가답당하야 일일히 대답하며 최선의 치료방법을 알너드림니다 약을쓰시든지 아니쓰시든지 그런여여마시고 여러분의가정의원이라고생각하시고 문의하시사 권쾌의길을 차즈시기바람니다 또이記事를 朝鮮日報에서 보셧다고 하시고 고통지하시면 어느가정이라도 꼭 한권식 잇서야할 위생지식 서류(부인병심득서)八十頁와男便되시는 분이국보셔야할 위생지식서류(명지모오기나구』의 實驗感謝狀사진)을 만재한 참고서류를 어느분에게도 거저드림니다(상기사시는 장지용씨의 부인과아드님이 온데 다년의 부인병으로자진은 (北碧潼郡會面計上洞)

복업슴을신세타령 하시다가명지모』와『오기나구』를 병용하시여 쾌히하시고 잉태하야 어드신귀동자입니다 깃분實例의 하나이며 그것뿐 여러분과 것치나누시기를바람니다)

조선의문부(醫問部) 의사 명

母)『六日分一圓十三日分二圓二十日分三圓』와 자복업는분 또는 중증(重症)의병세에 따라 각 증명된 가감명지모(加減命之母)『一週分一圓八十錢二週分三圓五十錢三週分五圓』이잇스며 고국부의약품을 곳처 곳개이게하며 의부로곳치는『오기나구』에도 경증용(八日分一圓、十七日分二圓、廿日分三圓)과중증용『본방오기나구七日分二圓、十一日分三圓、廿日分五圓』의별이잇스며 送料는 四十二錢기온데 열매의을 벼와지병구를 다스려행복의 추수를 하실여러분은 조금도주저마시고 하로밧비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ノ十三笹岡省三藥房(振替口座東京五〇五〇番)에주문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림니다

記事參照 (照)

가정의학서류 증정의학박사저술 부인병심득서 無代進呈 할아서보캐 조선국문

八月九日（水曜）（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 實況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 發表

◇午後〇時五分 伽倻琴倂唱

一、어화靑春 二、大丈夫 三、瀟湘八景 四、泛彼中流 崔素玉

◇同〇時四〇分 뉴ー스

◇同二時 趣味講座 歷史로본 名勝地（二） 文一平

◇同二時三〇分（A）野球試合 實況 都市對抗野球大會決勝戰 ── 明治神宮外苑球場으로부터中繼 ──

◇同四時 뉴ー스、職業紹介事項

◇同六時 童話 미련한나라 尹石重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石油이야기（三） 尹柱福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防疫週間講座 （一）防疫週間과展覽會에對하야 京城府社會課長

◇同八時（B）吹奏樂 李源甫

一、軍隊行進……슈ー바ー트作曲

二、時局軍歌集……大木護一編曲

三、行進曲『勝利의어버지』……간누作曲

四、行進曲『堂堂한隊者』……에르가作曲

五、行進曲『우리들의軍隊』……陸軍戶山學校軍樂隊作曲

京城브라스·밴도 指揮 林直

◇同八時三〇分 婦人音樂

一、混四重唱 집으로…드보르작作曲 全鮮男女夏期音樂講習會 講習會員中

二、獨唱 미비동카의湖水가……푸ー란스作曲 洪德順

三、피아노獨奏 圓舞曲……반드베르크作曲 徐英彩

四、獨唱 니나의死……페르골레지作曲 蔡洙興

五、바이올린獨奏 가、메누엣드……베ー토벤作曲 나、드로이메라이……슈ー망作曲 洪泰淳

六、獨唱 愛人와서來가……作曲 洪明浩

七、獨唱 봄가의배노래 李容駿

◇同九時 遠藤古跡 陸軍（三） 朴寅成

◇同九時三〇分（A）時報 氣象通報 뉴ー스 翌日프로그람發表

第一放送順序

八月九日（水曜） 波長三三三米

▲午前六時（A）ラヂオ體操 氣象通報 ▲午後〇時五分 二曲合奏 青柳 ▲同二時 防疫週間講座 防疫に就て（一） 京城府尹 井上淸 ▲同六時 お話 萬葉集の秋風の歌に就て（一） ▲同六時二五分 趣味講座 髮症と圓形禿髮症のホルモン療法 ▲同七時三〇分（H）講演 禿 ▲同八時（B）吹奏樂 ▲同八時三〇分（B）箏曲 ▲同八時二五分（B）映畫物語

◇明日順序◇

八月十日（木曜） 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市勢 京城府調査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南道雜歌 宋萬甲 金俸哲 ▲同〇時四〇分 뉴ー스 ▲同二時 趣味講座 歷史로본名勝地（三） 文一平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事項 ▲同六時 童話 新聞팔이少年 丁洪敎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防疫週間講座（二） 防疫에對하야 漢城醫師會長 金鎔鎭 ▲同八時 ▲同八時三〇分 李英山紅 大笒 金相淳 金永根 ▲同九時 西道雜歌 ▲同九時三〇分（A）時報 天氣豫報 뉴ー스 翌日프로그람發表

가정

나를부르십시요

‖ 일천구백삼십삼년에는 여러분이 누구를 부르시렵니까 『바토리샤·파레이』양 『로나·안드레』양 『나를불너주세요!』 외편으로부터 『캬스링·바켄』양 『베루나·히라ー』양 『도비ー원그』양

세게경제회의는……【四】

왜열렷다가다첫나

독일은빗만은나라독일서빗바더 각국에서는그돈을미국에다밧쳐

부인이아라둘국제지식

통화문제가아니라도 각국은서로관세를노피어 남의나라로부터 물건이못들어오도록막는터에 더구나각국의통화비률이혼란되매 돈ㅅ갑이오르고잇는나라로부터 돈ㅅ갑이떠러진나라로 라에향하야싼물건을가지고작구팔려들어오니까 그나라에서는 그대로또관세를올리어가게됨니다

나

세계경제회의에는 권채와배상금문제는아니라 통화와관세문제도 중요한의제로등어갈것이사실이니 세계경제회의도 똑바른명칭으로 말하면 세계통화와및 경제회의랍니다 그회의가엇지하여서 열리엇든지 미증유의공황을통리치기위해 자번주의각국이개최한국제회의임에 틀님업습니다 어떠케해서『차벳든』박멸론동계급진압의대책을세우랴고 회의를이기전부터 모든긔묘한책략과 신통한의견이 산떰이처럼쏘다와커나더랍니다

권채와 배상금문제에 잇서최후적결정권을 가진것은물론미국이어니와 그외에도 미국으로말하면 세계경제의약반을점령하는것만큼 세계경제회의의 성공과 불성공은 만히미국의태도에달리어잇습니다 후버대통령이상싸를 놋는바람에 세계경제회의는 개최까지도 문제되리라고보앗터니 『루스벨트』대통령이 취임하자 세계경제회의에대해서 환영하는태도와찬성하는의사를 표현하매 경제회의가 비로소세계의 주목을끌게 되얏든것입니다 『루스벨트』대통령은 론돈경제회의의 준비회의라는 이름아래 의대표를『와싱톤』으로불렷다가

각

한나라씩회의상 이란것이니 영국서는 『맥도날드』씨 불란서에서는 『에리오』씨로 각국의거두들이 자신출마를해서 미국과의타협을 시험햇습니다 그러나회부회상으로부터 각국간에는재미롭지못한 공긔가 충만해잇섯는바 그준에도 불란서는미국의금번위정지와 『인플레손』정책을 대단히미워하야 반미국적론논이 비등햇습니다 불란서는고만두고 영국 이태리등 각국도 미국이권채에 대해서 조금도양보할눈치가업시 항상 회폐해옴으로 적이불안을늣기고잇섯습니다 하여튼 부회상이끗난뒤 월십이일날 론돈서 세계경제회의의

화

막이 열리엇습니다 권채와배상금은 미국의요구를조차서 의론할제목으로 내걸지도못하고 오직통화와관세문제등만을 의논키로되얏습니다 그러나그런한회의가 엇지순조로이 진행되겟습니까? 개회벽두에『맥도날드』씨가 권채문제를쓰집어내서 미국의대표들을 망지소조케함으로써 제일차의풍파가일어나고말앗습니다 그다음으로 미, 영, 불삼국이 통화의비률을 일정하게맨들자고 대표간에의견이일치되야 결정되다고써지건하다가 루스벨트씨가 자긔네대표의의사도무시하고서 통화비률의결정을 거절하야 영국 더구나불란서의 감정을 극도로 화케함으로써 이차의풍파가ㅣ 이러나게되엇습니다

악

이와가치되고보니 그회의에무슨권위 무슨해결이 잇겟습니다? 미봉의대립과 사사의충돌을나타나일입니다(계속)

운명

손금에나타난 일생의갈길 (完)

여러분은음악가,사상가 사랑의복도 만으신지요

『슈피엘』에의하면 바른손은한사람이선조(先祖)에게 유전바더온것이며

왼손 은 그사람이 자긔가 발달식힌것이라고봄으로손금을볼때는 늘바른손을보게됩니다 관장학의 전문방면으로는손가락 손톱등을보는것이만흐나 중요한것으로는 손의대체형상과손금을보는것입니다 손의대체형상을보는것은 쉬운것이 안이니 손이란 그림에잇는것과 갓치 단순히 네종류뿐안이라 서로 석긴것도잇습니다닭입니다 간단히이네종류를말하면

(일) 비형수(箆形手)의사람은 창조적경향이잇스니 예술가 사색가실제가의손이며

(이) 추형수(錐形手)‖송곳가튼손‖는화가 쌘, 뭐쓰의잘그리는 부인의손이니 이손의주인은 감각성이 예민하고 외게의인상에잘 동요되니 이는 미학적손이며

(삼) 방형수(方形手)‖녀자의손가튼것‖를가진사람은 실제적인물이며 인생의 실질적방면에 기울며 그의생각과 계획은 늘구체적개념으로되며 말하자면 수자로계산하며무슨일에 착수하면 먼저 그일의구체실질적결과를 타산하니이는 상업가의손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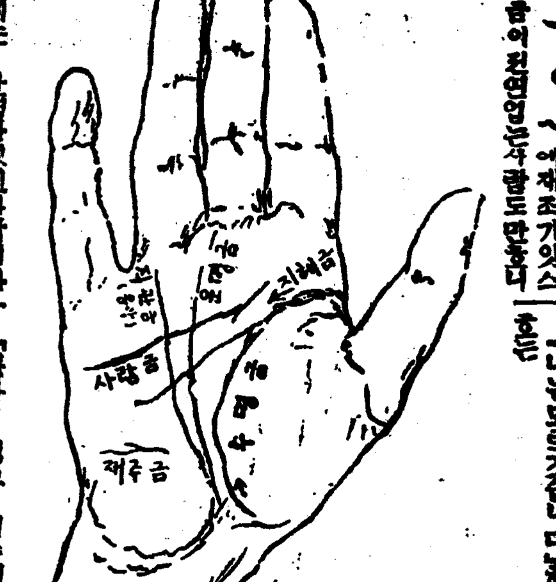
(사) 류형수(瘤形手)‖우둘우둘생긴손‖은 철학자의손이라고하겟습니다 그러나 손의형상만으로 사람의권체심리와 그경향을론하기는 어려겟지오

엄지 는 손가락 색리를 배누스산이라하는데 이산이왕성히돌게 물재로 손금으로말하면 바른손가장바른편에 둥그레케된것이 수명금이며이금이차고돈되면 육체상으로나정신상으로 창조력이만흔것을표현하는것이로다 어수명금의 발단에서시작되어 가로흔너간것이 지혜금인대커능아편에는이금이커런언업는일이잇습니다 어지혜금에 기와평행되어 지혜금과 반대방향인 좌단에서우단으로향하야 나간금이사랑금(애정금)이고그다음으로 그리고손목에서 넷재손가락을향하야 올라가는것이 직관금인데이금이 충실한이는흔히

음악 이기나라예술에재조가잇스며어음어천연업는사람도만흐니 음악에는 다행할것인가합니다 다시이직관금과가튼곳에서생재손가락(장지)으로향하야나간것이운명금인데 이금은사람의환경커항현된말하이나역시이지금(다른사람이나기라만물)에대한라할것이외다 운명이란별것안이고한사람소유의모든능력(지혜 감정 생명) 이환경에대한반작용입니다 『너의가슴에 비운명의 별이실려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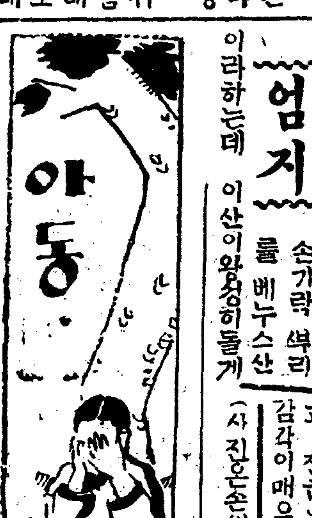
그런데 이네가지주요한금, 즉 수명금, 지혜금

사랑 금, 운명금은 서로엠(M)자모양으로 되여잇습니다 그럼에인는것과가리재주금의란것이 의는데이금이업는사람은손재조가 업스며득히 그림은 잘못그릴것입니다그리고 잔금이만흔사람은 감정과 감각이매우예민하다합니다(完) (사진은손의천구를해놓은것)



손금설명도(그림)

아동



童話 미련한곰의꾀 (윗)

和光幼稚園 尹順福

『곰이란놈이 그런말을햇습니다 그러나 그러치건방진놈가트니 가서나무를버히십시요 내가산양을할쏘고가서 구워해드리겟스니요』 하고여호는 커쪽 속으로드러갓습니다 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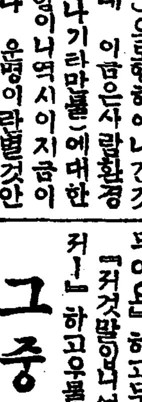
숩풀 가산속에서 큰나무를독긔로찍고잇노라니벌서곰이란놈이나무찍는소리를듯고쏘차나왓습니다

『이엉큼한놈아 내가잡아먹겟다고 일너두엇는데 물네와서 나무를 찍는단말이냐 오늘은 꼭 잡어먹고야말겟다』 하고말하엿습니다 농부는할수업서 『자네가 그러케 정말잡어먹겟다면 할수잇겟나 잡어먹게 그러나 이왕죽드나무나 다써거든 먹게그려』하고 대답하니까 곰이란놈은 『응그러지 얼는찍어야하네』 하면서 거만스럽고 주저넙게 쌔대고 기다리고잇섯습니다 그

벌서 헤향하고 총소리가 낫습니다 그러니 나거만한곰놈이겁이나서 『여보게 산양꾼이 왓나보구려』하며 눈이둥그래가지고 잇습니다 농부는천연스럽게 『오고말고 곰을잡는다고 벌서부터와서차저 다닌다네』 하고 대답하니까 곰이란놈은더 놀나서『응그러면 아마 여기도

그중 『뭇나? 익크 이수레밋헤무엇이웅크리고잇네 여보게것이 무어요』하고물는다 농부는 『커것말입니까 비! 커것은 커ー』 하고우물쑤물하고잇는데 그중에도건방진곰 이수레밋헤서 적은목소리로 농부를보고 『장작이라고 해라 장작이라고해라』하고가르치는고로농부는그대로 『커 커것은 장작이올시다』 『비 장작이야요 장작이면수레에다실어노앗슬터인데요』하고의심해하는것을보고 곰이란놈이 『수레우에다실어라 우에다실어』하는고로 농부는커하라는대로웅크리고업드린곰을 수레우에다실어언저노앗습니다 산양꾼은 농칭을피고 수레우에 웅크리고잇는곰을보고 우슴을 참지못해하면서 또물엇습니다 『여보커수레우에잇는것이 무어요』 농부는 『장작이얘요』하니까여호는 『장작이면 독긔로쏘여패엿슬 터인데』하고의심내는말을듯고 또곰이란놈이

농부 『독긔로패여라 독긔로패!』 만묵소리로 하는고로 농부는 커하라는대로독긔를번쩍들어 곰의등덜미를찍어패엿습니다 그러니건대 겟습니까그거만스럽고도미련한 곰은고만죽어버렷습니다(윗)



가정

음성이남부니 이것도병인가

문 커는실팔세된남자이온데 재작년부터 음성이변합니다 음성을낼수업습니다 음성의쇠심하여큰 이것도병중에하나입니까 (博川 一讀者)

답 물론병입니다 성대에만 청연뽕이잇슨때! 성대가약간 마비된때 성대주위에염증이잇슬때에 음성이변합니다 인과전문의사에게 곳진찰을바더치료를바드시요 眼耳鼻咽喉科醫院長 鄭起燮

人形의집을나와서

（一名 노라의後日譚） 【69】

秦萬植 作 吉鎭燮 畵

도하지안어한종파 (11)

노ー라와 혜경이는 밥니두 사람의 염호로갓다 재환이는 기회가 조라는듯에 모자를벗고 정당게 인사를한다

『커는 이런케뵙을은 『뵈올으로 갓섯지요 어대한혜원이으로 갓섯지요 어케도 말슴햇지만 기위 그러케된일이니 처집으로 데려다가 준비나좀해가지고장례라도 지냇라고 한것인데……』

말은 노ー라와 혜경이에게 하는것이지만 실상은 형순이더러 들으란소리다

형순이는 잡어먹고 십흔듯이 돌아서서 짓거리는 재환의 연얼골을 노려보고잇다

『참 요전날은 넘우 죄송스런것을해서 머 뭐낫치업습니다 커도 퍽 홍분이 되엇기때문에 그만그러케…… 그 배라먹을 녀편네가 뒤를 밟어왓든보양이야요…… 히스테리 히스테리해도 여간 히스테리가 아닌겁요집으로 데리고가서 단단히나 물하기는 햇습니다만……』

노ー라와혜경이는 체마다 하고 속으로 우섯다 영웅이 누구한사람 대구도 아니해주것만 그는 계속하여 짓거린다

『그날한 두분한테는 퍽 죄송스럽게 되엇지만 그사람한테야 별로 잘못한것이업습니다 보섯스니 아시겟지만 그러찬하요?』

그사람이라는것은 옥순이를 가르켜 하는말이다

『두분이 이사람한테 어떠케 말을 권하신지는 몰으겟습니다만은 이사람은 지금 날더러……』

이말에는 혜경이가 나섯다

『어떠케 권하긴 무얼 어떠케 권해요? 사실대로만다 말슴햇지요』

『네 네 물론 그러신줄압니다 사실대로 말슴하신줄알어요……글세 그사실이 제가 별로 잘못된것이야 잇습니까?……싸홈을 예어노치니까 어떠케 손이잘못가서 머리채가 잡힐수도잇고 또 흥분된 웃치리 편혀하게 그사람을 나뿌하게 된모양인데……』

『다 알엇서 인커는 내말을 들어』

형순이가 재환이의 어깨를 잡어 쇄 돌려세운다

『가만 가만 좀잇서』

『가만잇기는 무얼 가만잇서 그만하면 다 알엇서……내 이약이를 들어……』

형순이는 아침에 벼르든것보다는 냉정하고 침착하엿다 그리하야 별로 여러사람압해서 요란하게 떠들어 모양이 숭업거나 하지는아니할것가려 두여자는 말니려고도 아니하고 두어두고보앗다

실상 재환이가 미운판으로는 실컷좀 어떠맛는것을 보앗스면 시언하엿겟스나 오늘아츰에는 형순이가덤우흥분된 쇠레를무슨일을 저질을지몰나 그와가치 걸ㅅ설히 말니엇든것이다

『악가도 말햇지만 오늘아침에만 너를 맛낫서도 너는 내손에 뒤어것슬것인데 아마 네놈이 아직도 못된짓을 조곰은 더하라는 운순모양이다 만히 해먹다가 어느놈한테든지 마커죽어라 …… 그런치만 네한테 한마듸 물어볼말이잇다……네가 왜 내누이 머리채를잡어동대이치고 발길노 내질느고 그랫서?』

『글세 지금도 이야이를하잔햇나 싸홈을 쓰더말니자니 손이잘못가서 그러케된것이요 나는 흥분된판이라……』

『글세 그따우소리는 골백번 뇌어야 소용업서……너는 이놈 이혼을 안이해준다고 우리어머니아버지한테 그 숭악한 폭담을 다햇지……내게도 그랫지 그애더러는 이혼을 아니해줄테면 죽으라고 그랫지……그러고 너는 다른계집을 어더 살지……그러니까 너하고 우리하고는 형식으로 법률상 수속이 아니잇나 술원이지 인연은 원친지가 오래다…… 너도 평소에 아주 남이된줄노 말을 햇지?……그랫지?』

형순이는 맨웃말을 거듭하여 다지엇다 재환이는 그렁타고 고개를 끗덕거렷다

『그래……그러면 너는 그애한테 아주남이야? 그애도 너에게 상관이업고……』

『그런데 네가 무엇때문에그애를 때려?』

형순이는 쥐여들을듯이 재환이를 똑바로 처어다보앗다

誰人의身上이든지 조금압헤는暗黑

奇妙한三脈의靈感

危急災難을 數分前에 豫知하는秘法

피스톨爆彈短刀 强盜、暴漢、地震、洪水、火災、負傷、急病、交通事故等等只今이예서지悽然히잇는사람이、不意에여러가지災難을當하는데、생각하면誰人의身上이든지、조금압헤는暗黑이나、水難은大風을豫知하고、鱗는洪水을알고乾은地震을豫感하고、鼠는火災를알고、미리그집을떠난다、하물며萬物의靈長의人間은三脈의秘傳을알고잇스면어떠한災難이라도確實히이것을豫感하야免할수가잇다。明應七年八月二日夜遠州濱名湖에지금에더지는地震이잇섯는데、濱松에逗留하고잇든、神醫曲直瀨道三은晝開에다라낫다。明治元年戊辰五月十五日、여름비오는上野서彰義隊의激戰中、有名한劍客榊原健吉은其地位의危險한을豫感하고、急히몸을數十步로서도라다보니 激彈이炸裂하엿다。去大正十二年九月一日正午東京大地震의時午後四時頃이되여서急히家財一切을全部荷車에실어家中을비여노코郊外親戚에게로移舍하는菜蔬商이잇섯다、町內에사람들은이것을보고、벌서地震도못치낫는데무슨소용의移舍아냐고大笑하고잇섯스나其夜에町內는渦中의猛火에에워싸히여死人도無數히만흐혓섯스나、菜蔬商의一家는고양이한나無事히나막신한짝도업새지안엇다 누구든지平生에三脈을瞭해서、萬若異常이잇거든、靑天의霹靂、平地에波瀾、생각지안튼危難에當하야잇는것을쌔닷고이것을免할수가잇다。

누구든지 생각해둘알

人間의咽佛의左右에는大動脈이잇서恒常脈을치고잇승으로、左手를咽喉에다대ㄱ고、中指를右脈、拇指를左脈에대이면、三個의손끗해그脈搏을感한다、다시右手를해처고、左手의호동의脈을보다。그래서이三處의脈搏이一齊히뛰이는모양이똑가트면、如何히危險한데라도、其몸의絕對安全無事라는것을確言하야조타。그러나平生無事한사람이라도、何時如何한災難이잇슬지、사람의몸은조금압히暗黑이나、萬若이三脈이整調를失하야非常히紊亂된째에는반듯이 一大危難이、몸에切迫하여잇는것인故로、째에應하야精神을차리고其場所를떠난다든지 其自動車나汽車、汽船을타고떠나는것을면춘다든지、其他臨機應變에注意하면死漢이나强盜의피스톨、短刀其他어떠한災難이든지 未然히免할수가잇다。骨肉近親의病을 걱정하고잇는째이면 電報보다도 먼저其死를 알수가잇는것이다此三脈의 秘傳은古來兵法과 醫術에잇서서도 通神의極意奧義로되여서 有名한사람들에게도相傳되것이나、돈은一分도들지안코겨우一二分間에簡單히自己가곳치는便法인故로、누구든지平時에이것을試驗하시라、意外의豫感으로서災難을免

大自然의 神秘的靈能

을有하고잇승으로、肉體에對하야말하보면例컨대南京虫에게처음으로물니면조곰부려도、지독히브르키나、여러번當하면、南京虫이만히잇는집에잇서도 漸漸그부르킴이업서지는것은 其사람의血液中에 一種의免疫性抗毒素를生하기째문이다。小兒가一度홍역에걸니면 再次걸니지안는것은맛찬가지다。此抗毒素라는것은 化學藥에는업다。現代醫界서는動物血漿中의天然抗毒素를人體에 注射하는血淸療法으로서、二三의病에對해서는效力確實한것이잇다고 말하고잇스나원갓病을 征服할抗毒素는强한生活體에、生理的으로天然自然히하는것으로血液中에抗毒素가만허지면엄마술

虎列刺가流行

하여도 如何한傳染病도 조곰도두려울것이업다 그래서 次次全快하는것이다 그러나 玆에한가지이상한事實은 結核과熟病과 虎列刺와 流行性感冒等等의病源菌은、인갓動物體에 移植하면은잘活潑繁殖하나 蝮蛇만은 如何히頑强한 病原菌일지라도 絕對로바더드리지안는것은 細菌學上의 驚異라하고잇다 蝮蛇의體內에는 如何히强力한 抗毒素를充有하는가를 생각하기에 더말할것업다 蝮蛇는얼마을 精密히解剖分析하야도 其體內에는 조금도 毒物이업스나 蝮蛇는敵에出遇되면 體液이牙管에서 分泌한瞬間에 바늘끗에이슬방울보단도 적은少量으로 人間이라도殺傷할만한 猛毒으로 變化하야自身을保護한다 『一層을넘만한作用을有하고잇서 蝮蛇의 體內에는 現代科學未知의

靈妙不可思議强精分

을 充有하고잇스나 此强精分은醇酒中에 活性그대로 全部滲出하야、酒의作用으로人體에根源的으로、同化함으로古來歐洲에서도 支那에서도 現日本에서도蝮蛇酒에起死回生의奇效가잇다말하는것은、누구든지아지못할사람은업을만치傳하야오며잇스나、特히信州鹽澤家三百年來家傳日米專賣特許養命酒는、赤蝮蛇의活汁에、高山藥草七種을加하는秘法으로釀造하야、海拔三千尺高地의 風土氣候中에 經年으로 醱酵되며、瓶中에蝮蛇의形體업고淨化되여、黃金色으로맑은、幾層倍의靈能을發揮하야、녯부터瀕死의病人도魂을다시도리킨다는말도傳하여올만치의深山靈酒로、百藥無效의諸難病의人極度의衰弱者가甦生도하며血行이나 쇠게말르며、아품이잇든사람이、異常하게도全快되여貧血虛弱한사람이更生的으로健康히되며、精力衰弱男女가。

奇妙히性的으로靑春이

된다는實驗界의好評이여거저기서난다、健康者도朝晩小盃로一杯씩愛飮하면、倦怠를아지못하며衰弱을모르며、病을모르며、精力根氣의泉不老長生의 秘訣인지라現內閣中의 大臣을비롯하야朝野의名士、各方面의愛飮家날노多數에이르고잇스니、此養命酒는、上等葡萄酒보다도芳香美味이라女子小兒에게도、질거히飮用되오。

全部無料送呈

養命酒의由來、詳細한說明書와實驗集을希望하실분은、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三十二番地養命酒本舖 出張所로、即時ハガキ를보내시면全部無料送呈하오

大暴風雨慘害續報

金泉郡下에서도 八名壓死、六人重傷
家屋、家畜、田畓被害多大

【金泉】 김천지방에서금번호우에 피해가 참담함은긔보하엿거니와그동안교통이전부두절로인하여 시외각면의 피해상황을 조사할수업든바 자난칠일에 조사된바에의하면 동군증산면(同郡甑山面)에서는 산이문어지자그밋동리사는네집、식구팔명이일시에압사된 참혹한사실이 잇섯고그외에도 다음과가튼 참사가 잇섯다고한다
▲家屋流失八戶▲浸水家屋三十戶▲全壞七戶▲半壞七戶▲家畜死亡牛二頭豚三頭犬一鷄三〇餘首▲道路流失四粁二十個所決潰四粁▲流失畓二十町步埋沒十五町步

同郡大德面서도 一家三名溺死
其外洞民六名重傷

김천군대덕면(金泉郡大德面)에서도 수해로인하야 동면대리동(大洞里)(一四四番地) 김좌옥(金座玉)의 사남종수(鍾守)(三)동오녀 출이(出伊)(五)동면 주춘득(周春得)의 장모 장씨(張氏)(?)는싸저죽엇고 그동리김중옥(金重玉)(五)동인의처 최씨(崔氏)(?)주춘규(周春奎)의처 서씨(徐氏)(?)화전리(火田里)에거주하는 림관준(林冠俊)(?)과 리씨(李氏)(?)는 중상이되엇다한다

溫井里에도 空前大洪水
建物橋梁破壞等

【外金剛】 지난팔월일일부터시작한비는 련일업시 네리더니 사일오전부터시경에이르러돌연대폭풍우가일어 신건축가옥、교량도로기타총파손액이 약일만원의손해를 내이엇다 동시에온정리에서여행자등까지불통되엇고

溜池에서沐浴타 二兒溺死

【順川】 평원군숙천면사직리(平原郡肅川面社稷里)김군진(金君鎭)장녀 옥섬(玉蟾)(九)과 함께놀든동리 김택성(金澤成)의이녀 옥진(玉鎭)(三)은칠일오후한시경에 동리압 웅덩이에 목욕하려가서 목욕하다가 기피길반이나되는데 싸지여 죽엇는데 이를아지못하고 부모는사방으로 차젓으나 간곳을몰나헤매이고잇는바 동리에사는 리경근(李敬根)의처김씨가동일숙천읍내에왓다가 오후두시반경에 물아가든길에 그웅덩이속에 두명의의복이잇음을보앗다고 진함으로 그곳을가보즉자긔 아이의의복임으로 그웅덩이속을 뒤지어보즉 어김업는 옥섬임을알고 다시차즌즉 옥진의 시체가 다시발견되엇음으로 소관숙천경찰관 주재소에게출하야 경관과공의가 가서검시한결과 타살이안인것이 분명히판명 되엿다고한다

上世氏의特志
貧家에家賃免減

【高敞】 전북 고창군 읍내리(全北高敞郡邑內里)에거주하는 상세웅길(上世熊吉)씨는본읍에 빈자룩인에게 이십여년간 가옥세임을 면감하고 자긔소작인사십여명에게 극히후하게 한다하며 일반은 권긔상세씨의자선을 칭송불이 한다고한다

建物의被害 二百八十餘戶
土地六百五十餘町步 通川郡下慘狀後報

【通川】 강원도 통천 지방은지난이일부터 나리는 폭풍우로 인하야 적지안은 피해가잇엇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토천군내의 총피해액은 오만오천여원에 달한다하며통천군청(通川郡廳)의조사한바에 의하면다음과갓다

行方不明 一〇名 負傷者 一名

	土地	建物	橋梁	堤防	道路	漁船
流失	七六二反	五戶	八個所	─	七一間	二隻
破減	─	─	─	─	─	七隻
埋沒	四九六	─	─	─	─	─
破損	─	─	二〇	三三七間	七一四	四隻
浸水	六二二〇〇	二六四	─	─	─	─
全潰	七	六	─	─	─	─
行方不明	─	─	─	─	─	一隻
決潰	─	─		六八五間	─	─

山崩十個所

浸水耕地! 三千餘町步全滅
家屋浸水一千餘戶 金海郡菉山駕洛兩面에서

【龜浦】 지난삼일정오부터폭우가나리며 폭풍이부러 가락록산(駕洛、菉山) 양면에는바다의 써물이 올나서일대 소동을이르켯는데 가락면에는 사일에당지면소의조사한바에 의하면 업퍼진집이 일백구호 반괴가이십오호 부상자가삼명이며 공전의대홍수를치르고 근근이 구조되여잇는경지 구백삼십칠정보와 기타잡종경지 천여정보에 써물이덥퍼서 전멸되엿고 록산면에는압논경작지 구백여정보에 모다 써물이 드러전멸되여잇고 인축피가옥은 아즉조사중인데 사일오후부터 홍수가또나려서 가락록산량면에는 황토물바다가 되여잇는데 물은작고부러 오르는중이다

南原에서 家屋一棟倒壞
一名重傷危篤

【南原】 륙일오후칠시경남원읍동충리(東忠里)로모(魯某)의집에서 남원군수지면 고평리(水旨面考坪里)사는목수형재국(邢在局)이란사람이 가옥안에서작업하다가가옥이도괴되는바람에치여인사불성의중상되자즉시의사를 칭하여다가 응급치료한결과 생명만은 건지엇는바도괴원인은 작일의 폭풍우에서달이여 그와가티 도괴된것이라한다

◇寫眞……大暴風雨지난뒤의 外金剛溫井里一帶被害狀況一面

家屋倒潰九戶 船舶의破碎七隻
農作被害도勿論多大 上南熊南의暴風被害

【上南】 지난삼일의 폭풍우에창원군 상남、웅남(上南熊南)일대에 피해가불소한바 륙일까지판명된것은 가옥이구호 어선파괴가칠척 농작피해도 다대하야매몰면적이 천여평 침수면적이 이십여정보에달한다 집웅의날려간것이 이백여호 담장등의문어진것은 부지기수로서 폭풍우후의 흔적이곳곳이 보이는중 웅남귀곡(貴谷)에서는 집이문허저사람까지한명이 중상을 당하얏다한다

延日郡의金肥代 百二十餘萬圓
例年보다二三倍增加

【白川】 황해도연백군(延白郡)내일반농가에서는 금비열이심하야 군농회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퇴비는제조하여 사용치아니하고 암모니아의 사용이팽창하여오든바 금년에는 더욱심하야 례년보다이삼배 이상군내에서 소비된금비대가 벌서삼십여가마니에 달한다는데 한가마니에 사원식계산한다면 일백이십여만원이라는 놀라운 수자에달한다하며 피페하여가는 농촌경제는 물론하고 일반지주들로도 곤란한것은 농한긔인이때비료대로 백여만원이라는 것을 순전히 질소회사한곳으로 지출하고 올농이잘되지못하는 관계라는데 수도의수확도 례년보다배이상을 예상하고잇스나 곡가의권도가 어떠케나 될는지일반은매우 고려중에 잇다한다

僞造紙幣盛行으로 忠南警察總動員

◇四日부터八日까지五日間

【大田發】 긔보=지난칠월초순부터 충남지방에 조선은행권일원권 위조지폐가 크게류행하야 각상점과은행 우편국가튼곳에서 피해가불소할뿐아니라 벌서삼사십건의 다수에달하나 그범인을 체포치못하야 경찰당국에서는 매우머리를 앓든바이것이 경찰의 위신문제까지 된다하야 충남경찰부에서는 범인체포에 대활동중이며 각경찰서에수사령을나리여 사일부터 팔일까지는 범인수사데-로 정하고충남관내에 경찰총동원으로 범인을 엄탐중이라고한다

東林分局主催 修養講演盛況

【東林】 동림분국에서는지난 오일밤아홉시부터 본포학교 강당에서 수양강연을 개최하엿는데 정각전부터모여드는 군중은 더운여입에도 불구하고 수백여명에달하엿스며 분국장 김리연(金利淵)씨의 약간한 개회사가잇슨후 다음과가튼순서로 진행되여열시사십분에폐회되엿다
▲修養運動을일으키면서靑年教養社 曺秉和▲먼저自我를認識하라 靑年教養社 李春爾

平壤에僧侶風의 詐欺師가橫行
길흉봐준다하고금품을사취 ◇一般의注意가必要

【平壤】 최근평양부내에는괴상한승려(僧侶)가횡행하면서미신관념이강한 무지한녀자 들을속이고 금품을사취하고잇다 특히오후네시경 평양부내신리(新里)리정섭(李正涉)(?)이란 노파의집에 이십삼사세되여 보히는 바랑을메인후 목탁까지가진중이들어와 길흉화복을 보아주겟다고하면서 시가 삼십원되는금지환을 치마에차가지고 주문을외이는승내를 하다가 여덟시간후에 풀어보면 큰수가잇겟다고말하고떠나갓다 그중이나아간후 태도가수상한듯하여 치마를 펴처보앗슬때에는 금지환은간곳업섯다 속은줄알게된 정섭은 대소동을하며 평양서에게출햇스나 범인은못잡엇다 이러한종류의사긔한이 각처에 출몰하고잇슴으로 부민들은 주의할이 조켓다고한다

青年牧師 黃龜鶴氏永眠

【价川】 청년목사로령명이놉흔 평남개천읍교회시무 황귀학(黃龜鶴)(?)씨는약일주일전부터 병석에누엇든바 지난삼일밤 교인들에게 자긔는 명사일오후에 죽을것과 금후의모든일에대하야 세밀한지시를하고 일체로 의약을 거절하드니 과연 사일오후정삼시에 영면하엿는데 유족은 부인과 두아들이잇스며 영결식은 칠일오전십시개천읍교회에서거행하엿다한다

◇寫眞…故黃龜鶴牧師◇

患者에게 食料分給
朴海一氏特志

【陰城】 당지유지 박해일(朴海一)씨는금번 음성군음성면평곡리(陰城郡陰城面平谷里)장티부사환자 십오명에대하여 한녀름 병석에누워 살미음한그릇도 먹지못하는 측은이알고 돈삼십원을내여 백미몃말식과 반찬까지사서 논아주엇다하여 일반의 칭송이자자하다한다

自南自北으로 水害救濟熱勃興

救濟書畵會盛況
嶠南詩書畵研究會主催 六日琴湖館에서開會

【大邱】 교남서화연구회(嶠南書畵研究會) 주최와 본사대구지국후원인령남수해구제서화전람회는 예정대로 륙일오전열한시부터 하서정(下西町)금호관(琴湖館)에서 이백칠십명의참석으로 대성황리에 개최되어오후여섯시에 무사히 폐회하엿다 령남수재민을위하야 전람회에휘호출품한이는석재(石齋)서병오(徐丙五)씨를비롯하야박긔돈(朴基敦)허섭(許燮)김진만(金鎭萬)서병주(徐炳柱)배효원(裵孝源)서동균(徐東均)리원일(李源一)씨등서화계에명성이놉흔이들이며 전람회에 출품하엿든 서화칠십여점을 회원에게분배하고 회원에게서 모은구제금 백여원(아직미상)은 본사대구지국과 경남경북당국자에게 의뢰하야 리재민에게 분배하기로 하엿다한다

水害同情 映畵大會
郭山少年團主催

【郭山】 평북곽산에잇는긔독교동지회 및조선소년군 제구십오호대의 주최로 령남수해의재민구제사업을위하야 소년군극대회를 개최코저 준비중이던바경찰당국의 금지를밧고 부득이선천북영사(宣川北映社)영화대를조직하여 지난삼십일일과 본월일일량일 저녁에 영화대회를 열고푼푼이 모은돈과 자긔동정금을합하야 금이십원을 본보지국을통하야 이재지에 송금을 의뢰하얏다한다
◇義捐者芳名▲三圓 宣川北映社▲二圓五十錢 新義州信氣株式會社定州支店 二圓式 劉成龍 李昌命 張錫泰 姜鎔瑞 一圓式 白永樺 金尙玉女史 崔鋪臨 全基述 金鳳翰 白鳥堂 朴大成 五十錢式 金俊爵

少年會員의 雜貨行商
水害救濟코저

【北倉】 남조선수재동포에게 한술밥이라도 주기위하야지 난사일부터 평남맹산군 봉인면 가창소년회에서는 잡화행상을 하게되엿다는데 선거된 위원은 삼복더위도 가리지안코 각방으로도라단이며 여러분의 따듯한 동정을 구한다고 한다
◇被選委員 羅道林 李根澤 羅瑞林 文任休

死活을左右하는 馬山港經濟三線
改修、舖裝具體化

【馬山】 오지교통의개척에따라자원(資源)지대의물화집주여하는 마산항의사활문제를 좌우한다하야 오래전부터 현안이되여오든유일한삼경제선(經濟線)의개수포장(舖裝)문제가지난봄남지(南旨)함안가교가락청를마치고 다시 오지교통을 저해하고잇든적포(赤布)정암(井岩)량가교가설계획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됨을따러 요지음마산부 토목계에서 구체성안을 보게되야삼개년계속사업으로도롱원간착수케 된다는바 계상된선로와 개수내용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線 大邱統營線 九米改修 改修區間은自上南洞至幸町富町境界
二線 舊馬山驛線 八米改修 改修區間은自上南大邱統營線交叉點至元町
三線 改修區間 午東洞元町內 七米改修

醉漢이 行人을亂刺

【神戶】 신호시중합구상동정삼정목삼십구번지(神戶市湊合區上鑄井町三丁目)에다 주소를두고 이래과물상을하는 안주고(安周高)의처 정화분(鄭花芬)(二八)은 지난일일에 탄구국옥통(灘區國玉通)자긔친구의집에볼일이잇서 갓다가 날이저물어자 귀켭으로 도라오는도중 구관서학원(舊關西學院)부근에오자권동 이십삼세되여보이는 취한이 미친듯 시정화분에게 덤벼드려 예리한 칼로 어게무근데나 찔러노코그대로 자취를감추고 마럿다는바 강탈의 목적은안이고 미인의자태에 취한듯하다하며 소관송합경찰서에서는 방금범인을엄탐중이라한다

舍音의橫暴不斷
何等過失업는作權全部移動 小作人은結局調定申立

【大田】 충남홍성군 홍동홍주 장곡 광천 은하 결성 (洪城郡洪東、洪州、長谷、廣川、銀河結城) 등각면에 경성부호 민대식(閔大植)씨의토지가팔십여두락이잇는바 금년이월에 권사음을떼여내리고 새사음윤명필(尹炳弼)이라는사람을새로히사음으로내엿다 윤명필은 새로히사음이되야가지고 의긔양양하야 하등의과실이 업는소작인을 전부이동하야버리여 금년봄에도 적지안은 소동이잇섯든바 그곳군수의알선으로 일단해결이 되얏섯든것이매 사음윤명필은 모든약속을 위반하고 다시토지를전부 이동식히엿다고한다 전생명을그토지에 매여가지고 살는소작인들은 황당하야 사음에게애원도하고싸웅도하엿스나하등의 효과가업슴으로 소작조정령에 의하야 조정을소작위원회에 소작인김두현 황정성 윤명옥(金斗鉉 黃正性 尹明玉)등십오명의 명의로조정 제출하엿다 지금은 베를심어서거이다성장한이때에 잇서서도의연소작쟁의가게속되다고한다

南原支局主催 保健體操講習
來十四日부터四日間

【南原】 「억센조선의 건설」「튼튼한조선의 건설」을만들기위하야 본사주최의건전순회 민중보건체조강습회는 남원에서도본사남원지국주최남원긔독청년면려회(基督青年勉勵會)후원으로 오는십사일부터 사일간 개강키로된바 강사는 장권(張權)씨며 참가신청은 래십삼일까지 접수하게되엿고 가타상세사항은 직접지국으로 문의하거나 서신으로통지하기를바란다고한다

個人의感情이原因 兩洞이仇敵相對
酒席言爭무레作黨毆打騷動

【鐵原】 지난음력륙월초하루날에 철원군동송면 이평리(鐵原郡東松面二坪里)개말에사는 리영지(李永之)외 칠인이그리웃동리 옷술막 박영진(朴永眞)주점에 복노리를할제 그동리에사는 천만봉(千萬奉)이가 그술집으로 술을먹으려들어갓섯스나 좌석이 업슴으로거절을당하고 나왓다가 갓흔동리에잇는 조태성(趙泰成)과 함께 다시술집으로 들어가서 복노리하는 여러사람넘헤서 마음대로 술을먹든중 이자리가 누구의자리며 이술이 누구의 술이냐는문제로 서로다투다가 결국은복노리하든여러사람이 천만봉과 조태성에게 치난과 조금구타를당하고 도라가게되엿다 그리자이갓치모욕을 당한것이 분하엿슴인지 잇흘이지난 사흔날밤중에 개말동리 사십호중에서 몃을제하고는 전부떼를 지어가지고옷술막에와서 천만봉이가 잠든것을 깨워가지고 불러 가자고 끌고나온뒤에 인사불성이 되도록 구타하고 도라갓다한다 그리하야 천만봉은 즉시 철원읍 구세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두주간치료를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야 리영지외칠인을상대로 고소를 제긔하엿다는데 금번사건의당사자들이 잇는 옷술막과개말은 불과한마정가량 떠러저잇는곳으로 매사에부조하고 서로옹호하든터이엿다는데 금번사건발생으로 인하야 동리어리의사이도 점점머러지고 서로적대시하고 잇다하며 사건은압흐로 점점확대될모양이라한다

新舊設立者葛藤 普光學校危機
作權二重放賣로作人衝突 畢竟은訴訟沙汰

【興上】 지난칠월이십칠일함남함주군 주서면흥남리(咸州郡州西面興南里)에잇는 주서면사립보광학교(私立普光學校)소유토지에서 주서면칠리(七里)리진석(李晋錫)외이십여명의작자가 벼를캐고잇슬때 돌연히 백여명의군중이몰려와 구타폭행을 함으로 이에대하야 삼사시간동안이나 싸우고잇슬때소관흥상(興上)주재소에서 이급보를듯고삼사명의순사가 현장에 급행하야겨우진정하엿스나 그때는임이느저서 칠팔명의중경상자까지내엿다고하며 가해자오명은 인치하엿다는데 이제 자세한내용을 듯건대 전긔보광학교는 거금이십삼년전에 하주면십일개리(下州面十一個里)에 잇는 의숙(義塾)재산을몰수하야 창립한것으로 이래현금대부와 소작료로겨우교비를 지출하든바 작년칠월부터 구설립자인김철수(金喆洙)씨가 학교재산을 사긔횡령하엿다는 조건으로 함흥지방법원에 고소하는 일방신설립자를 재선하야 군당국에인가원을 제출하고 전긔김철수는 교무에태만하다하야 작년십이월 사일에학교경영과 운권의보조관인 평의원회를 열고 필빈도토지소작권을 매도하엿든바 구설립자김철수씨는 권리가 아직까지자긔에게 잇다는리유로 십이월말일부로 전긔토지를 중이으로반매하엿다 그후로경긔부터 소작인간 분쟁가일기 시작되여지난오월이십구일 박규오(朴奎五)송진헌(宋?軒)등은 업무방해죄로 함흥경찰관 흥상주재소에고소하엿고 이어리수국(李壽國)외구명은 소작권확인소송을함흥 지방법원에 제긔하엿스며 벌어진분쟁은 점점더 벌어저서 권긔와가튼 대중의 충돌까지 보게되엿스며 피해자리진석(李晋錫)리수국(李壽國)외구명은가해자 송윤석(宋允錫)안연(安?)송근풍(宋根豊)등을걸어서 폭행상해죄로 흥상주재소에 계소하엿다하며 일반식자와 학부형들은 신구설립자의 권횡을비난하야마지안으며 따라서 주서에잇서서 유일한무산아동 교육긔관인 보광학교는 존폐량난에잇다한다

盜賊嫌疑밧고 飮毒自殺

【陰城】 지난삼일에충북음성군소이면충도리(陰城郡蘇伊面忠道里)최긔룡(崔起龍)씨 안해김씨(金氏)(?)는 억울함을익이지못하여 양재물을마시고 오빈에무참이도 죽는사실이 잇스니이제 그자세한것을 조사한바에의하면 권긔저씨는 남의집곁방을 어더 구차한 살님을하여 오든중 불행이도 지난일일에 집주인이 어데로 출타하여그집에는 다만곁방사리하는 식구만 남어잇섯는데 그날밤에 주인집소가 어데로 종적을감초고말엇는바 주인이도라와 보고당지주재소에 고발하여 최씨가족을 호출취조하지 안엇다한다 김씨는하도 기가막히고 억울하여 그와갓치 음독자살 한것이라한다

三脚의 畸形鷄
홍문바른편에 다리가하나

【義州】 의주읍내구성동(義州邑內龜城洞) 팔십오번지오진삼(吳鎭三)씨집에는아조긔형적으로생긴 다리세개가진 닭을길으고잇서 매일구경군이 구름모이듯하는데 긔자가 현장에가서 주인의말을듯고 그닭을보즉 현재크기가 약구십匁(몸매) 무게밧게는 더되여보이지안는 암닭으로서 지난사월중순경에 주인이 집에서깨운것이라는데 다른닭처럼 두다리가잇는외에 홍문오른편쪽에 별달니 훨씬한다리가 하나달녀잇서서 거름거를째이면 발고락끗을안으로 굽혀가지고 전후좌우로 이리치고저리치여 달음질함이 참말긔관이기때문에 보고오지안는 사람이업다한다

客의委託米를 無斷放賣逃走

【淸道】 청도군 대성면 고수동(淸道郡大城面高樹洞)음식점영업자 정두화(鄭斗和)는 손님리호긔(李鎬基)가 위탁한 백미아홉가마니를 지난사일 임의로 팔어가지고 도주한사실이 잇는데 이를탐지한청도경찰은 목하조사에착수한모양이다

運動競技

雄淸庭球對抗戰 勝利는淸津軍에

【淸津】 청진체육회주최, 본보청진지국후원으로 지난륙일오후일시에 웅긔대청진 정구대항을 청진철도국코-트에서 개최하고 오후네시에 대성황으로 종료되엿는데 결국승리는청진선수들에게돌아가고말엇다고한다

南朝鮮庭球大會 優勝은榮山浦에

【榮山浦】 영산포정구구락부주최 본사영산포지국 후원으로 제일회남선개인정구대회를 지난륙일 당지영산포에서 개최한바 멀니정읍(井邑)함평(咸平)광주(光州)령암(靈岩)등지에서 참가하야 무사폐회하엿는데 결승의 전적은다음과갓다한다
○榮山浦 鄭正燮 張漢基 × 井邑 金洪奎 辛龍根

長箭 全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十三日(雨天順延)
△場所 長箭公普校第一코-트
△主催 朝鮮日報長箭支局
△後援 長箭有志 會

淸道 留學生音樂演劇會

△時日 八月十一日午後八時
△場所 淸道公立普通學校
△主催 淸道留學生會
△後援 中央、朝鮮兩支局

史話 雲峴宮의봄 51

琴童 作 石泉 畫

七의五

조(趙)성쓰는 상놈이 하나잇섯다

생애라고는 특별히 하는일이 업섯다 그의 정업은 투전이엇다 투전을 하여 요행돈냥이라도 생기면 그것으로술을 먹엇다

투전판도 알마즌것이 업슬째는 길목을 지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공 트집을 잡어서 싸홈을 걸엇다 그러고 거기서 몃잔의 술이라도 써내이고 하엿다

포도청 포교 들이며 금부옥졸들도 이 조가는 써리엇다조가는 옥에가치는 것도무서워 하지안햇다 옥에드러갓다가 나오는것을 례상사로알엇다 나오기만하면 당일로또 다시못된일을 하엿다 원더리자긔를잡어가둔 포교에게 반드시원수를 가텃다

옥에 가치는것을 두려워하지안코 매 맛는것을 두려워하지 안는 인물이지라 모도들이 이 조가를 써리엇다 포교들이 밤ㅅ중에 아지못하고 조가를 붓들엇다가라도 조가인줄 알기만하면

『이번에는 용서해 주거니와 이다음 다시잡히는날은 용서치안는다』

고 위력을 한뒤에는 자긔편에서 슬몃이 피하고 하엿다

이 조가에게는 고모가 하나잇섯다 그고모는 무당이엇다 무당ㅅ가운데도 그다지류행하지못하는 재쏘무당이엇다

그것이 어써어써하다가 우연히 하옥의 애첩 량씨에게 눌리우게가 되엿다 사람의 연분이란 긔괴한 것으로써 이 말째 무당이 한번 두번 량씨에게 드나드는 동안 량씨의 신임과 총애를 어덧다

그 무당이 량씨에게 신임을 밧게된 석달뒤에 거리의 보랏자 시비군 조가는 변방이나마 함경도 어떤 고을의 원주로 임명이 되엇다

─토굴과가튼 안국동 어떤 막걸리ㅅ집 누린내와 지린내와 막걸리ㅅ내가 뒤섞긴 마루에서 술군 세사람이 서로주고밧는 이야기는 이조가에 관한 말이엇다

「죄옷간 조흔 세월밧세 조가놈이 원님이 다되어 간다니 그러면 우리도 원님되지말라는 법이야 업겟지」

두사람의 다툼을 말리든친구가 탄식 석긴 소리로 이러케말하엿다

그러나 『킹봉 리가는 그래도 자긔의 생을 감출수가 업는 모양이엇다

『그따위 놈이 원님? 홍! 그놈이 원님을 제대로 한다면 내×도 서달─홍 서달? 판서를 하겟다 판서? 령의정이라두 하겟다 원님이 다뭐냐 아니꼽게』

『이 킹풍 리가야 양반아도둑놈아 시켯단 말이냐 조가를 원을 내가 시켯나 왜내게시비냐 내가 원을 시킬수만잇다면 네맘마따나 네×도 령의정을 시켜주마』

공연히 떠들지 말고 잔이나 어서 내서 이리 보내게」

불평객은 겨우 잔을 들엇나 꿀떡! 목젓소리를 내이며 단숨에 막걸리를 드리키고 잔을 마즌편에 안즌 친구에게 던저 주엇다

「자 따라주게 그러케 옹졸한게아니라네 놈이원님이 됏스면 우리는 술갑시나 떠내러 차저가구 합세나 놈이 아모리 원님이 됏다들 우리야 괄시하겟나? 술갑 떠러지면 차저가구합세나」

호긔로운 친구는 여전히 하하 우스면서 술ㅅ잔을 들이켯다

떠오르는 겸 몰려오는 지린내 누린내─ 이러한 가운데서 우둑컹컹한 등잔 아레 이른 봄의 밤은 차차기퍼 간다 자긔네의 그룹가운데서 한사람의 원님을 내인 동지들은 이 갑싼 향락처인 막걸리ㅅ집에서 그들의 종일 시달린 피로와 울분을 털텁한 몃잔의막걸리로서 푸는것이엇다

야반(夜半)을 알리는종ㅅ소리가 써지는듯한 무거운 여음을 남기면서 울엇다 그종ㅅ소리의 여음을 기다리듯이

「수리어」하는 관주의 웨치는 소리가 더욱 밤다히 갓가운 어느 곳에서 낫다